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六)

鄭景玉

三. 宗教의 社會的 對像

마지막으로 氏는 主張하였다. 宗教의 對像인 神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社會自體라고. 氏의 論文의 要點이 여기에 있는 듯한 대도 別로 여기에 對한 『哲學的』 解釋을 말하이주지 아니한 것이 遺憾이나 社會가 곧 神이라고 主張하는 □米의 學者 中에 神을 『**엥클샘**』이라고 하는 에임스 教授나(뉴트나의 神觀集 二三五-二五〇) **으니테리안**의 人文 主義者인 □, 에쉬, 띄추리(□□者의 宗教)나 米國 心理學者인 루마의 『宗教經驗』이나 어대를 보든지 形而上學的 理論을 避하기 爲하여서 『宇宙의 絶對實在인 神은 알 수가 업고 우리가 잘 아는 宗教에서 밋는 神들은 社會價値를 理想化한것』이라고 하였다. "God but. he gods of reigion")

그러나 氏는 이러한 人文 主義者들과 가티 絶對實在에 對한 哲學的 □疑조차 업시 社會體는 곧 神이라는 結論을 지었다. 氏의 神論을 檢討하기 前에 먼저 알아 들것은 『社會體 卽 神』이란 말과 社會的 神이란 말에 天壤의 善가 잇다는 것이다. 神이란 人間經驗밖에 잇슬 수 업는 것이기 때문에, 神을 經驗할 때에는 人間의 社會 經驗 內容의 制限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神의 內容은 만흔 □遇에 잇서서 社會 價値 內容을 含蓄한다. 그러나 神이 곧 社會體란 말은 社會的 契約을 實體의 絶對□□을 하는 實用主義의 一種이라고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現代 『社會的 神의 發明者』라는 別名을 맞는 쉬카고 大學 『**쇠일터마듀**』도 이러한 粗野한 實用主義에서 버서나서 社會神을 말하면서도 □定한 意味에 잇서 서의 有神論者이며 韓先生이 몇번이나 引用함에 취지웰스도 原始人의 社會的 神觀을 말하였스나, 그 사람 自身은 原始人이 아니라 分명한 有神論者이며 우리가 敬慕하는 톨스토이 先生亦是 人文主義인 同時에 『하나님』을 밋고 잇섯든 것이다.

이제 韓廷玉氏의 神論을 말하여 보자. 氏의 神論은 『先哲들이 主張해온 □神觀』을 批判하는대서 始作한다. 氏가 말하는 『□神觀』이란 것은 最近여러 學者들의 學說보다도 十八世紀 以前 사람들의 傳統的 神觀(帆足-宗教 哲學 概論 四八九頁 以下)을 이야기 한 것이다. 하여간 氏의 目次들 따라 傳統의 一神敎 汎神論, 自然 神敎를 차례로 훑어보기로 하자.

傳統的 一神敎에 對하여

『神은 絶對 萬能의 實在로서 宇宙는 그의 意志에 依하여 虛無로부터 創造 되었다』는 것을 基督教의 神觀이라고 氏는 解釋하고 (第 一回三段三十三行 以下) 『自然理法을 밋는 우리로서 宇宙間의 이러한 超自然的 事實을 認定할 수 없다』

(同上六十一頁 以下)고 말한다.

筆者는 여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 疑問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氏가 말한대로 오거스틴의 神觀이 純全히 □의 人的이웃든가 오거스틴은 自己個人的 經驗에 잇서 서는 道德的 關係를 지을 수 잇는 人格의 神을 밋고 잇섯스나 哲學的 立□에 잇서 서는 新 플라토 主義의 影響을 바닷기 때문에, 宇宙及 人生을 超越한 實在가 잇다는 것을 미뎠다. 설사 오거스틴이 무어라고 말하였든지를 不關하고 科學的으로 보아서는 結局□擬人的이라. 업퍼 씨운다고 할지라도 氏가 생각한 것과 가티 오거스틴의 神觀에 基督教神觀을 代表할만한 것인지 疑問이다. 勿論오거스틴의 神學이 基督教思想에 잇서서 칼빈 主義나 現代獨逸바디안 學派에 影響을 준바 적지 안타고 하겠지 만은 現代 基督教神學의 大部分이 그 中에도 特別히 칸트 哲學의 □禮를 밋은 룻셀 學派와 가티 極端으로 오거스틴 神學에 反旗를든 基督教思想이 잇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둘째로 筆者는 氏가 잘쓰는 『自然理法의 絶對性』이니 『超自然』이니 하는 述語意義의를 잘 理解할 수가 업다는 것이다. 氏의 생각에는 神은 반다시 『實眞한 經驗 卽 科學的 知識』으로만 證明할 수 잇는 것이라고 본다. 이 말에 살을 부치자면 아마도 아래와 가튼 것 일줄 안다. 人間의 가장 完全하고 適合하고 有效한 知識은 自然 科學으로 어든 結果이다. 말하자면 이것만이 人間의 眞實한 經驗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잇는 이 宇宙의 本質과 意義와 目的을 說明하며 人生이 宇宙안에 잇서 서의 關係와 地位와 機能을 說明하는 것도 오직 自然 科學의 方法과 結果에서만 차질 수 잇다. 神이란 怪物이 잇느냐 잇다면 科學的으로 解剖하여 보자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自然 主義라고 부른다. 그러나 氏에게 뭇는다. 『科學的』이란 말이 許與한 經驗事實을 偏見이 업는 態度를 가지고 分析하며 綜合하며 記述한다는 말이

아니라, 外部의 物的 存在와 그 法則이 絶對性이 있다는 것을 먼저 認定하는 一種의 『絶對論』이 科學이며 이것을 哲學的 原則이라고 생각하여 가지고 宇宙와 人生을 說明하는것이 科學이라고 하는가. 사람을 珠盤으로 計算하고 神을 物質不滅의 自然理法을 說明할 수 잇슬 줄 아는가. 萬一 그러타면 □氏는 第一回三段五行 以下에 宗教的 眞理를 『物理나 化學처럼 研究하며 解折하는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얏는가. 또 氏는 自然과 人生은 根本的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方法도 달리하여야 理解한다고 하지 안헛든가. 目的 經驗을 自然 科學的 法則으로 說明하랴고 하는 自然 主義的 單純化에 根本的 誤錯□□이 잇는 것이며 自家撞着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